

“정권 바뀌었다고 노동적폐 사라지지 않았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년 전국노동자대회... “누구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이 11월 12일 서울광장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2017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정권교체에 그치지 말고 70

년 묵은 적폐를 청산하고 세상 바꾸자는 게 촛불 시민의 요구였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 청산에 답하지 않고, 노조 할 권리 보장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정부 정책과 의지로 가능한 노동적폐 청산 5대 과제에 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와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와 특례업



종 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정부가 우선 해결할 5대 과제로 내걸고 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 투쟁사에서 “오늘 새벽 두 명의 금속노동자가 굴뚝에 올랐다. 삼성전자서비스, 한국지엠비정규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 중이다. 금호타이어에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라며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다. 포장지가 바뀌었다고 적폐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2018년에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합원들과 함께 금속노조 10기 출범식에서 결의했다”라며 “17만 금속노조의 하나 된 투쟁이 노동적폐 철폐

투쟁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2018년 투쟁 꼭 승리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노동부의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 처분했다. 공문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

뒤에 숨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말도 안 되는 교원평가제는 교단 분열 획책하는 반교육 정책이다. 성과연봉제와 교원평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11월 24일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연가 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 문선대 조합원들과 한국지엠비정규직, 현대중공업사내하청, 케이블티비비정규노동자, KTX열차승무지부, 아사히비정규직, 자동차판매비정규직,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동자가 무대에 올라 노동 3권과 노동자 투쟁을 가로막는 장막을 걷어내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대회 참가 노동자들은 서울광장을 출발해 을지로와 종로를 행진해 광화문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도약하는 금속노조 10기 출범식 열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오늘 전국노동자대회가 투쟁의 결의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최지순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동지회 법규 부장은 “전노대 본대회는 전국의 수 많은 동지와 함께해서 힘을 받는다. 이 기운 받아 현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투쟁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호정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전국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모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해 쟁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14시부터 ‘도약하는 금속노조 10기 출범식’을 서울 청계광장 입구에서 열었다.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금속 산별노조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변화와 혁신, 조합원에게 믿음을 주는 실천을 해야 한다”라며 “조합원의 요구와 동떨어진 투쟁이 노조를 죽인다. 현장에 뿌리내린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노조 10기 집행부는 금속 산별 노조를 살리고,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당당히 요구하고, 산별교섭 법제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자축의 말을 남겼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출범 선언에서 “조합원 여러분의 뜻을 받아 안아 중앙위원, 대의원, 지부장 동지들과 함께 사업계획과 투쟁과제를 논의하겠다”라며 “금속노조 10기는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화답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자본과 정부에 대한 금속노동자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 위원장과 노사정위원장의 반노동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라며 “교섭에 연연하지 않겠다. 교섭보다 투쟁을 우선 조직하겠다. 17만 조합원과 함께 당당히 투쟁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파인텍지회 75미터 고공농성 돌입

12일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올라... “김세권 스타플렉스 회장, 고용 보장 등 약속 지켜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 등 두 명의 조합원이 11월 12일 04시 30분쯤 서울 목동 열병합 발전소 75m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회는 12일 정오 두 조합원의 고공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김세권 스타플렉스 회

장에게 2015년 7월 7일 합의한 고용 보장, 노동조합·단체협약 등 세 가지 승계 이행 요구 ▲민주노조 사수와 노동악법 철폐 ▲헬조선 악의 축 수구정당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했다.

사측은 고용보장 등의 합의 이행을 위해 파인텍을 설립했으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일방 합의 위반과 교섭 거부 등 불법 상황을 1년 넘게 끌고 있다.

지회는 11월 13일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 7시 목동 열병합발전소 농성장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다.